地理學論叢 第24號(1994. 8), 133-155.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제작배경과 寫本들의 系譜를 중심으로-*

오상학**

< 차 례 >

Ⅰ. 序論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자료
Ⅱ. <東國地圖>의 製作背景
1. 鄭尙驥의 生涯와 家系
2. <東國地圖>제작의 동기
3. 당시 지도제작의 수준
Ⅲ. <東國地圖> 寫本들의 製作過程
Ⅳ. <東國地圖> 寫本들의 系譜
1. 鄭尙驥의 <東國地圖>
2. <東國地圖>의 修正本 系列
1) 初期 修正本 系列
2) 鄭厚祚의 '海州新本' 系列
3) <八路總圖>와 <東域圖>
Ⅴ. 요약 및 결론

主要語 : 鄭尙驥, 東國地圖, 製作背景, 系譜, 海州新本

Ⅰ. 序論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地圖는 地表空間을 표현한 圖形이다. 산맥, 하천, 호수, 섬 등의 自然的 要素 뿐만 아니라 道路, 聚落 등과 같은 人文的 要素까지도 지도를 통해서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과거에 제작된 古地圖도 당시 공간에 대한 지식의 총체가 표현된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그려 나가면서 공간에 대한 보다 더 개선된 도형을 보여 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지도 하나하나는 불완전하나마 계속 뒤를 이어 나온 지도들이 앞서의 불완전성과 미숙을 조금씩 고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연속의 사진이 이루는 활동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서정철, 1991, 12-13).

우리나라의 지도제작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행해졌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활발하게 지도가 제작되었음이 여러 기록에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지도들은 현존하지 않고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朝鮮朝 世宗 때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梁誠之·鄭陟의 <東國地圖>와 같은 실측지도들이 제작되었고 이러한 지도제작은 地理志 編纂事業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서 후기까지 이어져 왔다.

조선후기 우리나라의 지도학은 古山子 金正浩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는데, 그는 현대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대축척 지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보다 100여년 앞선 시기에 鄭尙驥라는 뛰어난 지도제작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百里尺이란 축척을 사용하여 大全圖와 八道分圖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도학 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상기의 지도는 계속적으로 傳寫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졌고 현재에도 여러 사본들이 각 도서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1] 그러나 현재 이러한 寫本들에 대한 분류와 정리

---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영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역사학자들에 의한 몇몇 단편적인 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통상 '東國地圖' 또는 '八道地圖'라 불리는[2] 鄭尙驥의 지도를 이전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윤곽을 표현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지도들은 남부지방에 비해 두만강과 압록강유역을 포함하는 북부지방의 윤곽이 다소 왜곡되었는데 정상기의 지도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현재 지도의 윤곽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해냈다. 이러한 윤곽의 변화는 조선시대 지도학사상 하나의 혁명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후의 지도들이 대부분 鄭尙驥의 지도 윤곽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東國地圖>가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鄭尙驥는 어떻게 해서 이전 지도와 체제가 다르고 보다 정확한 윤곽을 지닌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당대의 과학기술 수준과 지도 제작상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도제작에 참여하는 신분계층, 지도제작의 기초작업인 실측과정에 대한 해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차원으로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印本이 아니라 寫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대에 걸쳐 그의 자손들과 여러 지도제작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傳寫되면서 修正, 校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修正, 校補를 통해 진행된 傳寫 過程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東國地圖>의 傳寫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의 系譜를 밝혀내고, 이들에 의해 지도가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까지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두번째 연구목적이다.

이상의 작업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東國地圖> 사본들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 세번째 연구목적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傳寫·修正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현존 寫本들도 구성체제나 표현형태 및 내용 등이 原圖와 거의 유사한 것이 있는 반면 다소 변형된 것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 사본들의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연관을 파악하고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은 <東國地圖>의 역사적 변용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현존 사본들 중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도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본 연구목적에 해당한다.

2. 研究資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東國地圖> 寫本들을 포함하는 地圖類, 『朝鮮王朝實錄』을 포함하는 正史類, 각종의 地理志, 당시 지도제작과 관련된 사람들의 文集類, 族譜 등의 기타 자료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地圖類는 현존하는 것으로서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박물관, 성신여대 박물관, 숭실대 박물관, 이화여대 도서관, 호암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와 개인소장본 등을 사용하였다. 지도 자료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에 현존하는 모든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의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도 여러 본 소장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3]

Ⅱ. <東國地圖>의 製作背景

1. 鄭尙驥의 生涯와 家系

鄭尙驥의 生涯에 관한 기록은 星湖 李瀷의 문집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단편적인 기록이 전부이다.[4] 鄭尙驥에 관한 이후 학자들의 언급은 대부분 李瀷의 문집에 실려있는 글들을 인용하고 있다. 星湖 李瀷과 鄭尙驥는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李瀷의 문집속에는 鄭尙驥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鄭恒齡에게 보냈던 편지들도 수록되어 있다.[5]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을 토대로 鄭尙驥의 生涯와 家系를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鄭尙驥는 肅宗 4년(1678)에 출생하여 英祖 28년(1752)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字는 汝逸이고 號는 農圃子이다. 九世祖는 河東府院君 鄭麟趾이고 高祖는 判中樞府事 鄭光績, 曾祖는 司憲府 掌令 鄭復吉, 祖

는 襄陽府使 世輔, 父는 篤行公 文後이다.

鄭尙驥의 아버지 鄭文後는 孝宗 元年(1650)에 태어나 肅宗 10年(1684)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鄭尙驥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부친인 篤行公은 당쟁에 환멸을 느껴 과거를 일찍 포기하고 杜門不出 학업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에 鄭尙驥의 성장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鄭尙驥는 홀어머니와 서로 도우며 생활을 꾸려가는데 家勢는 상당히 빈궁하였다. 성장해서는 여러 번 科擧에 응시했으나 실패하였고, 또한 몸이 병약하여 일찌감치 벼슬을 포기하고 가업을 계승했다.

鄭尙驥의 어머니 이씨부인은 全州李氏 掌令 李奎老의 딸로서 남편이 일찍 죽자 어린 鄭尙驥와 함께 가업을 꾸려 갔다. 자식 교육은 엄격했으며 농사와 같이 남자가 하기 힘든 일까지 몸소 행했고 賢婦로서 칭송이 자자했다. 鄭尙驥의 부인은 驪興李氏 咸鏡道 都事 李萬休의 딸로서 남편보다 18년 앞서 세상을 떴다. 李萬休의 아버지 縣監 李湜은 李瀷의 從祖父로서 鄭尙驥의 부인과 李瀷은 가까운 친척이 되고 이로 인해 李瀷은 鄭尙驥와 교분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둘간의 친교는 그로부터 3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고 학문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鄭尙驥는 膝下에 希天, 泰齡, 恒齡, 台齡 등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중 希天은 어려서 죽었고 台齡도 35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泰齡은 벼슬을 하지 못했으나 恒齡(1710~1770)은 英祖11년(1735)년 進士 壯元을 한 후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鄭尙驥는 아들 恒齡으로 인해 말년에 中樞府僉知의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6]

恒齡의 아들 元霖(1731~1800)은 字는 季仁, 號는 居安堂이며 通政大夫 敦寧府都正이란 벼슬까지 오르게 되는데 正祖 때 추천되어 『輿地勝覽』 編纂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師霖의 장남 遂榮(1743~1831)의 號는 之又齋이고 어려서부터 詩文과 書畵에 뛰어나 많은 그림을 남겼으며[7]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校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鄭尙驥의 家系를 볼 때 아들 恒齡과 손자 元霖, 증손 遂榮이 지도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데 4대에 걸쳐 지도제작에 일가를 이루었다.[8] 시기적으로도 거의 백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한 가문에서 몇 대에 걸쳐 지도제작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鄭尙驥의 河東鄭氏 가문은 이러한 인적 계보에 의해 조선후기 지도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2. <東國地圖> 製作[9]의 動機

鄭尙驥는 반드시 옛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학문을 전개시켰고 많은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다방면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중년 이후로는 두문불출 저술에만 몰두하여 『農圃問答』 『人子備鑑』 『深衣說』 『韜鈐篇』 『鄕居要覽』 『治郡要覽』 등의 저작을 남겼으나 『農圃問答』을 제외하고는 현전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선비가 비록 궁박하게 집에 있어도 뜻은 항상 나라를 救濟하는 데 있다. 무릇 治民, 治兵, 山川, 關防, 財賦, 城郭, 車甲, 器械, 行陳, 醫藥, 蠶績, 耕農, 日用의 道具 들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니 깊이 헤아려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農圃子라는 호까지 지어 시골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10] 이처럼 현실의 생활체험을 토대로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그의 학문성향은 당대 실학의 대가인 星湖 李瀷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성숙되었고, 마침내는 <東國地圖>라는 역작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鄭尙驥의 지도제작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東國地圖>에 관한 鄭尙驥 자신의 유일한 기술인 地圖 跋文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11] <東國地圖>의 跋文은 여러 지도사본에 게재되어 있는데 전사 과정상의 오류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기상 당대에 근접하는 사본에 있는 跋文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지도가 대단히 많으나 寫本과 인쇄본을 막론하고 모두가 지면의 넓고 좁음과 둥글고 모난 것에 의해서 그렸던 까닭에 山川과 道里가 모두 어그러졌다. 십여리 정도의 가까운 것이 수백리 보다 더 멀고, 수백리 정도의 먼 것이 십여리보다 더 가깝다. 동서남북의 방위에 이르러서는 위치가 바뀌어 그 지도를 보고 사방을 돌아다니려고 해도 하나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 어둠속에서 길을 가는 자와 다름이 없다. 나는 이것을 근심하여 마침내 이 지도를 만든 것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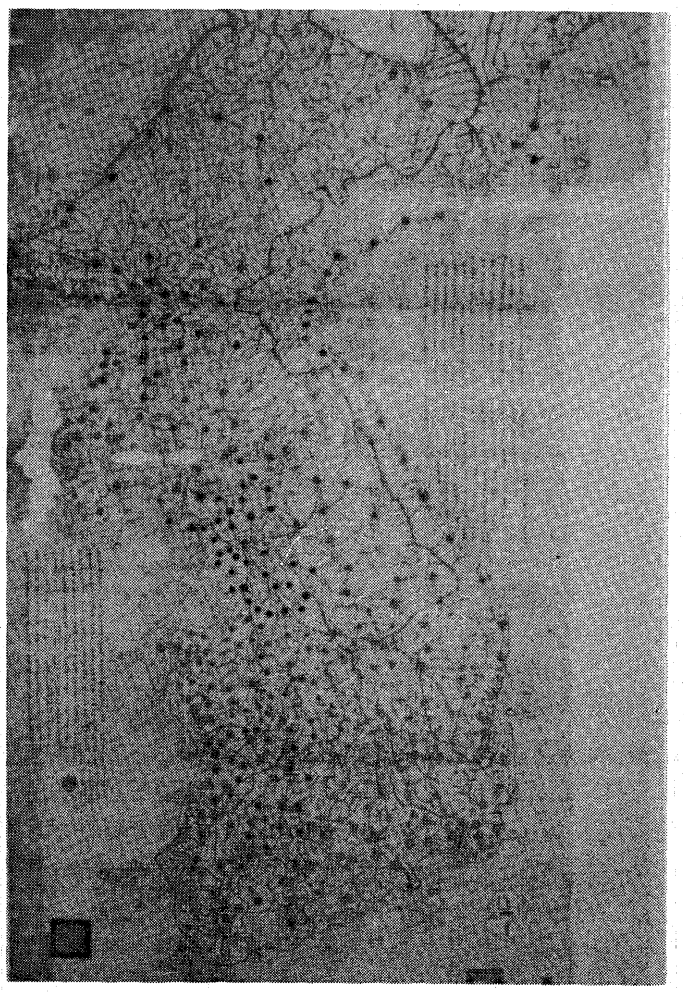

사진 1. 전형적인 鄭尙驥의 <東國大全圖> 사본인 숭실대 소장의 <朝鮮全圖>

위의 跋文에서 대강 드러나듯이 이전 시대의 지도들이 많은 결함들을 갖고 있어서 지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鄭尙驥는 이를 극복한 보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지니고 지도 제작에 임하게 된다.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도들은 대부분 紙面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리나 방위들이 정확하지 못했다. 이들 지도의 대표적인 지도가 『東國輿地勝覽』에 삽입된 八道總圖와 道別圖 즉, <東覽圖>인데 『東國輿地勝覽』 판본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맞도록 지도의 형태를 조정했기 때문에 八道總圖의 모습은 남북으로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각 도별도 역시 판본의 규격에 맞도록 지도의 형태를 조정하고 있어서 축척도 일정하지 못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李燦, 1979, 249). 또한 <東覽圖>가 행정, 군사적 용도에서보다는 『東國輿地勝覽』의 附圖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에 싣고 있는 내용도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지도 유형은 당시 민간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鄭尙驥는 당대 지도들에게서 보이는 결점들을 극복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사진 1 참조).

3. 當時 地圖製作의 水準

지도제작이란 것은 일 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나 기법에 의해 이룩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도 이전까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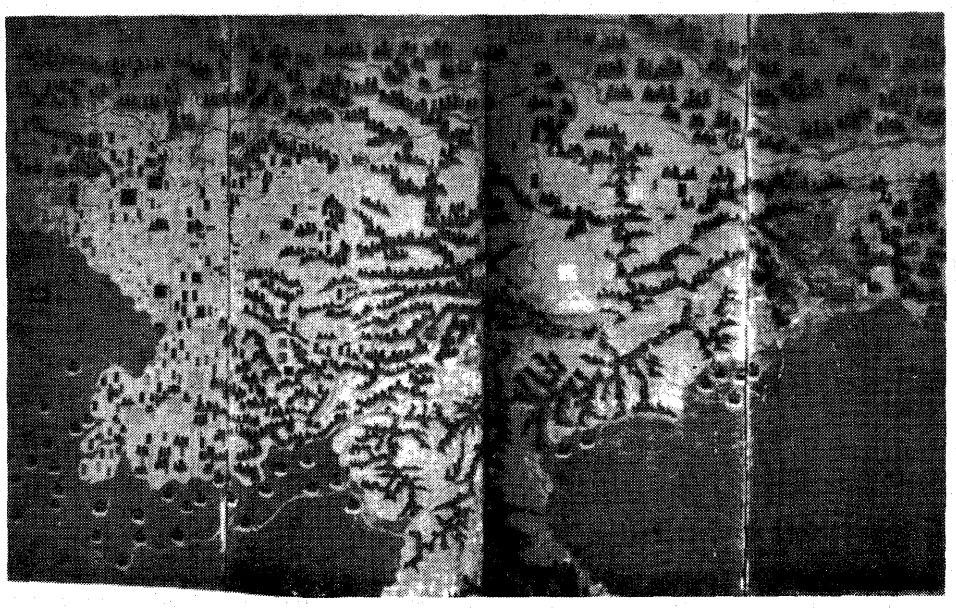

사진 2. 奎章閣 소장 <遼薊關防地圖>의 한반도 북부지방

도 제작상의 모든 방법들을 종합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당시 지도학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은 <東國地圖>를 둘러싸고 있는 제작상의 신비를 벗겨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 지도학은 梁誠之·鄭陟의 <東國地圖>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추진된 실측 지도였다. 이러한 지도 제작의 성과는『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와 道別圖에 반영되어 조선후기로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즉 조선전기의 실측지도의 전형인 <東國地圖>는 鄭尙驥의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대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全相運, 1988, 325). 그러나 조선전기 실측지도로 평가되는 日本 內閣文庫 所藏의 <朝鮮國繪圖>[13]와 國史編纂委員會 所藏의 <朝鮮方域之圖>(李相泰, 1991, 17-23), <朝鮮八道地圖>(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7, 24), 李燦 所藏의 <朝鮮八道輿地之圖> 등과 鄭尙驥의 <東國地圖> 사본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윤곽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특히 북부지방과 연해지역 등의 차이가 현저한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鄭尙驥가 <東國地圖>를 조선전기 실측지도들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14] 따라서 시기상 조선전기 실측지도와 鄭尙驥의 <東國地圖> 사이에 제작되었던 지도들을 파악해내고 이들이 표현해내고 있는 내용과 한반도의 구체적인 윤곽을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정상기의 지도가 출현할 수 있었던 地圖學史的 背景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이후부터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제작되기 전에 해당하는 기간은 조선전기만큼 국가적 사업으로서 활발하게 지도를 제작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지도들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 지도제작이 다소 정체된 시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지도제작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고, 현존하는 당시 지도가 거의 없다고 해서 당대 지도제작이 정체를 면치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는 반대로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오히려 임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군사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지도제작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전쟁후의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양안의 정리와 호적의 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고 농업생산력의 회복을 위해 농지의 개간과 농법의 개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 이러한 농

업에서의 생산력의 증대는 수공업, 광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상품교환경제의 발달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실학이 태동하여 정립기에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모든 여건들은 당시 지도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에서의 지도 소유를 금지했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사대부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의 지도 소유가 가능해졌고[15]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의 지도제작이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었다.

정상기의 지도가 제작될 당시 지도학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현존하는 대표적인 지도가 肅宗 32년(1706)에 李頤命이 올린 <遼薊關防圖>이다(사진 2 참조).[16] 李頤命(1658~1722)은 孝宗에서 肅宗 연간의 학자로서 숙종 31년(1705)과 1720년 숙종 승하시에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서양의 천문, 역산에 관한 서적들과 중국의 지리서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도제작에도 조예가 깊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중이던 1687년에 <關東地圖>를 만들어 진상했으며, <遼薊關防圖>를 進上하기 바로 전해 燕京에 사신으로 갔을 때 求得했던 <山東海防地圖>를 模寫하여 올리기도 하였다.[17] 당시 模寫하여 올린 <遼薊關防圖>는 明나라 職方郎 仙克謹이 저술한 『籌勝必覽』에 소재한 지도[18]와 淸人이 저술한 『盛京志』에 있는 <烏喇地方圖>, 그리고 우리나라의 <航海貢路圖>와 <西北江海邊界圖>를 하나로 합쳐 만든 것이다.[19]

이 지도를 보면 압록강·두만강 일대를 포함하는 북부지방의 윤곽이 조선전기의 <東國地圖>와는 다르게 상당히 정확해졌으며 백두산이 뚜렷하게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의 중·북부 지역만이 표현되어서 남부지방의 윤곽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전기 실측지도류에는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정확히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遼薊關防圖>가 底本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의 지도가 남부지방에 있어서는 조선전기 실측지도의 윤곽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북부지방의 형태가 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의 지도보다는 상당히 정확한 윤곽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鄭尙驥가 지도를 제작할 당시의 지도학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한반도 북부의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그 이북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계속 정교화되어 갔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지도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李瀷의 『星湖僿說』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星湖僿說』 東國地圖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지도 한 첩을 얻었는데, 서북으로 위치한 저쪽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경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직접 답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근대 사람의 식견이나 역량으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다. 옛적에 尹鍈이란 사람은 윤씨 집안의 서자로 이충무공의 외손이며, 李完平의 서녀를 아내로 삼았다.…중략… 그는 항도부기 1첩을 제작했으나 전해지지 않고 이 지도는 아마 그가 남긴 듯하다. 그에 말에 의하면, '寧古塔은 숙신의 옛터이다. 한·당 이전에는 동북 지방에 강대한 나라나 큰 부족이 없고 우리나라만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중략…' 나의 친구 鄭汝逸도 百里尺을 만들어 정밀하게 지도를 제작했는데 대략 이 지도와 들어맞는다…."[20]

여기에서 李瀷이 언급하고 있는 尹鍈은 古山子 金正浩가 <靑邱圖> 凡例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사람의 지도 제작자 중의 한 사람이다.[21] 윗글에서 李瀷이 지적하고 있듯이 尹鍈은 鄭尙驥보다 훨씬 앞선 시대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의 장인인 李完平 즉, 李元翼은 명종 2년(1547)에서 인조12년(1634) 사이의 인물인데 이를 토대로 보더라도 尹鍈의 삶은 1700년을 넘지 않는 17세기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李瀷과 동시대의 인물인 鄭尙驥보다 몇 십년을 앞선 지도 제작자가 되는 셈이다. 李瀷이 언급하고 있는 <東國地圖>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도에 대한 그의 설명으로 본다면 압록강, 두만강의 접경지방을 중심으로 그려진 關防地圖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李瀷이 인용하고 있는 尹鍈의 말은 현존하는 몇몇 關防地圖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22] 이러한 關防地圖도 목판본이 아닌 필사본으로서 모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때 이의 底本은 尹鍈의 지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鄭尙驥의 지도에서처럼 지도를 모사할 때 지도 뿐만 아니라 지도 여백의 발문까지도 같이 전사해 놓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몇몇 關防地圖들은 바로 李瀷이 언급하고 있는

표 1. 分析資料로 사용된 鄭尙驥의 八道分圖 寫本

일련번호	지도명	분류번호	소장처	구성
* 1	朝鮮八道地圖	규12419	규장각	10폭병풍
* 2	朝鮮地圖	규25200	규장각	1첩6절
3	八道地圖	규10331	규장각	1첩9절
4	八道地圖	고4709-14	규장각	2책1첩8절
5	八道地圖	고4709-23	규장각	1첩8절
6	海東地圖	고4709-61	규장각	1첩8절
7	左海分圖	고4709-99	규장각	1첩2절
8	八道地圖	고4709-48	규장각	8축족자
9	輿地圖	고4709-37	규장각	1첩8절
10	輿地圖	고4709-78	규장각	1첩13매
11	左海地圖	규12229	규장각	1첩8절
12	東域圖	고4709-27	규장각	1첩8절
13	八道分圖	고915.1-P173	규장각	1책9장
14	朝鮮八道地圖	고4709-54	규장각	1첩10매
15	大東地圖	한61-9 귀121	국립중앙도서관	1첩12절
16	東國地圖	한61-12 귀112	국립중앙도서관	1첩8절
17	八道地圖	한61-17 귀105	국립중앙도서관	2책16장
18	東國八域圖	한61-26	국립중앙도서관	1첩8절
19	我東輿地圖	한61-48	국립중앙도서관	1첩9절
20	左海輿圖	고2702-16	국립중앙도서관	1첩9절
21	古韓國全圖	2520	고려대박물관	8장1질
22	朝鮮全圖	D129	고려대박물관	1첩9장
23	朝鮮八道地圖		성신여대박물관	1첩8절
24	輿地圖		성신여대박물관	1첩9절
25	東國地圖		성신여대박물관	1첩9절
26	東國八路分地圖		성신여대박물관	1첩8절
** 27	八道地圖		숭실대박물관	8첩1질
28	八路指掌		이화여대도서관	1첩9절
29	東國地圖		호암미술관	1첩9절
30	海東圖		호암미술관	1첩9절
** 31	天下古今總圖		호암미술관	1첩10절
32	東國地圖		이찬 소장	8매
33	東國地圖		이찬 소장	8매

* 규장각 소장의 朝鮮八道地圖(규12419)는 마이크로필름 복사가 안 되어 있었고 朝鮮地圖(규25200)는 글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해 이후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숭실대 박물관 소장의 八道地圖와 호암미술관 소장의 天下古今總圖는 박물관 사정으로 열람을 할 수 없어서 이후의 분석 대상에서 마찬가지로 제외시켰다.

尹鐸의 <東國地圖>를 底本으로 模寫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지도를 통해서 17세기 이후 지도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지도도 <遼薊關防地圖>와 마찬가지로 북부지방의 윤곽이 조선 전기 지도들보다 정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대 지도제작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金正浩가 <靑邱圖>凡例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인물, 바로 黃暐이다. 黃暐에 관한 기록은 1758년(英祖 34)에 李世旭이 편찬한 경기도 포천의 읍지인 『堅城誌』의 塚墓條에서 보인다.

"黃暐의 字는 晦仲이고 본관은 長山이다. 翼成公 喜의 9세손이고 主簿 孝謙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六藝를 익혔는데 禮와 樂과 書에 더욱 뛰어났다. 또한 의학의 이치에 통달하여 진맥으로 생사를 알기까지 했다. 이와 더불어 우

리나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과 道里의 원근을 알아서 輿地圖와 地圖衍義를 만들었는데 정밀하기가 그지없어 수천리 지방도 바로 앞에서 보는 것같이 확연했다. 그 재능의 정교로움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縣 남쪽 15리 花山宮村에서 거주했으며 현종 丙午年(1666)에 태어나 영조 丙辰年(1736)에 죽었다."[23]

위의 기록으로 볼 때 黃暐은 鄭尙驥보다 12년 앞서 태어났고 16년 앞서 죽었다. 최소한 鄭尙驥의 당대 또는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인물이다. 그러나 위 기록 자체만으로는 黃暐이 제작한 輿地圖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대 지도학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正浩가 <靑邱圖> 凡例에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라면 당대 뛰어난 지도 제작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靑邱圖>가 완성되었을 때인 1834년은 이미 黃暐이 죽은 지 100여년 가량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金正浩가 <靑邱圖> 제작 시 그의 지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지도가 뛰어났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李頤命의 <遼薊關防地圖>, 尹鍈의 <東國地圖>, 黃暐의 <輿地圖> 등은 鄭尙驥가 <東國地圖>를 제작할 당시 지도학의 수준을 단편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도들이 鄭尙驥의 <東國地圖> 제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 지도말고도 다른 지도가 <東國地圖> 제작에 底本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위의 세 사람의 지도와 鄭尙驥의 <東國地圖> 사이의 연관을 도출해 내는 것은 현재로선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제작의 점진적 연속성이다. 과거의 지도들을 보면 마치 활동사진처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나 윤곽이 점진적으로 정교해지는데 이는 공간의 표상인 지도가 당대 인간의 인식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 때문이다. 鄭尙驥의 <東國地圖>도 연속적인 활동사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전의 여러 지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사람의 지도들도 이전 시기에 찍혀진 여러 활동사진들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위에서 살펴본 세 명의 지도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에 묻혀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흔적은 위에서 제시한 지도들에서 미력하게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조선전기에 제작된 實測地圖類에서 바로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연결시킨다면 이들 지도들은 연속적인 활동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사진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싸고도는 신비를 끝내 벗길 수 없을 것이다.

Ⅲ. <東國地圖> 寫本들의 製作過程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大全圖와 八道分圖로 구분되는데 남아 있는 사본에서는 大全圖보다 八道分圖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大全圖의 규격[24] 자체가 너무 커서 열람과 휴대하는 데 불편하고 또한 제작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分帖式으로 된 八道分圖의 형태로 傳寫되었기 때문이다.[25] 鄭尙驥의 大全圖 寫本은 규장각 소장의 <朝鮮全圖(고축4709-95)>, <八路總圖(고매912.51-P186)>, 숭실대 소장의 <朝鮮全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朝鮮八域圖> 등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26]

大全圖와는 달리 八道分圖는 많은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사본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지도들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현존하는 八道分圖 寫本들은 대부분 分帖式으로 되어 있고 규격에 있어서는 사본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마는 대략 가로 60cm, 세로 100cm 정도이다. 여기에서 분석자료로 사용된 사본들은 八道分圖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鄭尙驥의 八道分圖를 바탕으로 傳寫, 修正된 지도들이다. 지도의 규격, 구성체제, 전체적인 윤곽, 산천의 표현체계 등이 鄭尙驥의 八道分圖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27] 각 소장처별로 파악하여 분석자료로 삼았다. 특히 정상기 지도의 초기 전사본뿐만 아니라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을 底本으로 하여 제작된 修正本까지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각 사본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지도의 조사, 정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소장본이나 지방의 대학도서관, 박물관 등의 지도들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28] 서울 시내 각 도서관, 박물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들을 소장처

별로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

鄭尙驥의 八道分圖 寫本들의 傳寫, 製作過程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鄭尙驥의 지도 사본들에게서 간혹 보이는 跋文이나 序文 또는 凡例의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대부분의 고지도들은 제작자나 제작시기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의 제작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몇몇 지도들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작과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지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규장각 소장의 <左海地圖(12229)>와 <八道地圖(고4709-48)>이다. <左海地圖>에는 鄭允容의 序文이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鄭尙驥의 八道分圖가 傳寫, 修正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서문을 보면 鄭尙驥의 아들 鄭恒齡은 관직이 持平에까지 이르렀는데 鄭尙驥의 지도를 계속해서 修潤했고 鄭恒齡의 아들 鄭元霖도 正祖 때 특명으로 『輿地考』를 수보하여 관직이 都正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鄭恒齡의 손자 之又齋 鄭遂榮도 그림에 뛰어나 鄭尙驥의 지도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鄭尙驥 이래 3대에 걸친 <東國地圖>의 修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鄭恒齡이다. 그는 1735년 進士壯元을 한 후 童蒙敎官을 지냈고 1743년 癸亥庭試에 入格한 후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兩司의 持平, 正言, 司諫, 執義 등을 역임했다.[29]

鄭恒齡이 그의 부친인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修補하는 작업은 이미 1760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작업에는 申景濬과 安鼎福 같이 지리적 식견이 뛰어난 학자들의 협조가 星湖 李瀷의 주선하에 이루어졌음을 그의 문집에 실려있는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30] 申景濬은 鄭恒齡과 함께 한반도의 네 모서리지역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31] 이처럼 申景濬을 비롯한 安鼎福과 같은 당대 실학자들의 식견이 鄭恒齡의 지도 교보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도 내용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丁若鏞의 『大東水經』을 보면 이의 단초를 파악해 볼 수 있다. 丁若鏞은 그의 『大東水經』에서 鄭恒齡의 지도를 고증자료로 사용했는데, 그가 언급하고 있는 鄭恒齡 지도의 지명들은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여러 마을 이름들을 포함하고 있다.[32] 다시 말해서 丁若鏞이 이용한 지도는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鄭恒齡이 校補한 지도인데 이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지명이 자세히 표기된 것이다. 이와 같이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鄭恒齡 代를 거치면서 단순한 模寫를 넘어 표현된 지리적 내용들이 보다 풍부해졌고 이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33]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특히, 申景濬과 같은 이는 鄭恒齡이 校補한 寫本을 바탕으로 새롭게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34]

이처럼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河東鄭氏 가문을 중심으로 교보·전사되어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의 국토에 관심을 갖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면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左海地圖>에서 鄭允容은 1822년(壬午)에 서문을 썼고 1838년(戊戌)에 改修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서문을 쓸 당시의 之又齋 鄭遂榮의 나이가 팔십여세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정상기의 생애(1678~1752) 말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東國地圖>는 정상기를 포함하는 하동정씨 집안 4대에 걸쳐, 시간적으로는 백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金正浩의 <靑邱圖>가 나오기 전까지 조선후기 지도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鄭允容의 <左海地圖> 서문과 더불어 鄭尙驥의 지도가 傳寫, 修正되는 과정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규장각 소장의 <八道地圖>에 쓰여진 頤齋 黃胤錫[35]의 跋文이다. <八道地圖>는 黃胤錫이 1790년 3월에 鄭尙驥의 八道分圖를 模寫, 修正한 지도인데 이 지도의 함경북도에는 鄭尙驥의 八道分圖 原圖에 실려있는 발문과 더불어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黃胤錫 자신이 쓴 기록이 그 옆에 있다(이찬, 1991, 109 도판 65 참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도본은 司諫 鄭恒齡의 부친인 河東鄭氏 僉樞 鄭尙驥가 제작하여 범례를 덧붙인 것인데 전에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다. 최근에 海州鄭氏 佐郎 鄭厚祚는 판서 鄭運維의 아들인데 그의 형 文官 鄭喆祚는 曆法, 西學, 그리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고 厚祚는 中國, 西域, 靑海, 蒙古, 盛京地圖 등을 더욱 힘써 궁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도 一以貫之하여 河東本에 의해 수정을 가해서 마침내 그 이상의 뛰어난 지도를 만들어 냈다…."[36]

이 글에서는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河東鄭氏 家門뿐만 아니라 鄭喆祚, 鄭厚祚로 대표되는 海州鄭氏 家門에 의해서도 修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鄭喆祚, 鄭厚祚는 영조 때 承旨, 工曹判書 등을 역임한 鄭運維(1704~1772)의 아들이다. 鄭喆祚(1730~1781)는 장남으로 字는 城伯이고 號는 石癡이며 英祖 50년(1774) 甲午 文科에 급제하여 正言을 역임했다. 동생 鄭厚祚(1758~1793)는 字가 德承이며 正祖 元年(1777)에 生員에 及第하여 德山縣監을 지낸 인물이다.[37]

『槿域書畵徵』을 보면 鄭喆祚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英祖 50년 甲午 文科에 及第했고 관직은 持平에 이르렀는데 특히 그림으로 명성이 났음을 지적하고 있다.[38] 실지로 그는 御眞을 模寫할 정도[39]로 그림에 뛰어났고, 謙齋 鄭敾, 玄齋 沈師正과 더불어 石癡謙玄이라 불리기도 하였다.[40] 이처럼 鄭喆祚는 화가로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黃胤錫이 지적한 것처럼 天文, 曆算, 西學에도 뛰어남을 보였다. 그가 교류를 했던 사람들은 黃胤錫을 비롯하여 燕巖 朴趾源, 楚亭 朴齊家 등 북학파의 대가들이었는데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선진 학문들을 받아들여 체화시킬 수 있었다. 黃胤錫이 저술한 『理數新編』의 역산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鄭喆祚로부터 전승받은 것이다.[41] 戊子年(1768) 鄭喆祚와의 편지에서는 儀器 제작과 관련하여 鄭喆祚의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데[42]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학문 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鄭喆祚의 천문, 역산에 관한 해박한 지식들이 지도제작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金正浩는 <靑邱圖> 凡例에서 鄭喆祚를 뛰어난 지도제작자 중의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고 李圭景도 자신의 저서에서 鄭喆祚의 輿地圖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43] 그러나 李圭景이 언급하고 있는 鄭喆祚에 대한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고증을 거치지않고 金正浩의 <靑邱圖> 凡例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뒤이어서 金正浩의 <靑邱圖>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가 이 글을 쓸 당시는 이미 <靑邱圖>가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李圭景도 <靑邱圖>를 보고 凡例에 있는 鄭喆祚 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李圭景의 鄭喆祚에 관한 언급도 金正浩로부터 나온 것인데, 김정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鄭喆祚와 교류를 했던 사람들의 글에서는 鄭喆祚의 지도제작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44] 鄭寅普 先生도 金正浩의 <靑邱圖> 凡例에서 鄭喆祚의 지도가 언급되는 것을 보고 이의 제작경위를 캐보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45] 이처럼 鄭喆祚의 지도에 대한 기록은 金正浩 <靑邱圖> 凡例 이외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나머지 두 인물 즉, 黃暐과 尹鍈에 대한 기록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문헌에서도 보인다. 그렇다면 鄭喆祚보다 훨씬 이전에, 그보다 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만든 지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고 상당한 명성을 날렸던 鄭喆祚의 지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왠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鄭喆祚와 절친했던 黃胤錫이 1790년에 제작한 그의 <八道地圖> 跋文에서도 그가 지도를 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790년이면 鄭喆祚가 죽은 지 대략 10년이 되는 기간인데 그가 생전에 제작한 지도에 대해 절친한 친구가 몰랐다는 것은 더욱 더 납득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黃胤錫은 鄭喆祚의 동생 鄭厚祚가 제작한 지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金正浩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金正浩는 海州鄭氏 家門에서 鄭厚祚가 제작한 지도를 그의 형 鄭喆祚가 제작한 것으로 잘못 전해듣고 <靑邱圖> 凡例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철조의 曆算과 西學에 대한 지식은 동생 鄭厚祚의 지도제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鄭喆祚의 동생 鄭厚祚는 형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직도 높지 못했다. 다만 正祖 때, 校正郎廳 直長의 직분으로 儀軌 제작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6품까지 올랐을 정도이다.[46] 그의 구체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행히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에 그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가 실려 있어서 그의 생애 파악에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靑莊館全書』 중 各省의 南極 高度를 논하는 부분에서 李德懋는 鄭厚祚가 지은 『四裔志』라는 지리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된 내용은 지면을 측량하는 방법을 北極 高度인 緯度와 편도인 經度에 입각해서 설명한 것이다.[47] 이를 통해서 볼 때 鄭厚祚는 黃胤錫이 지적했던 것처럼 天文, 曆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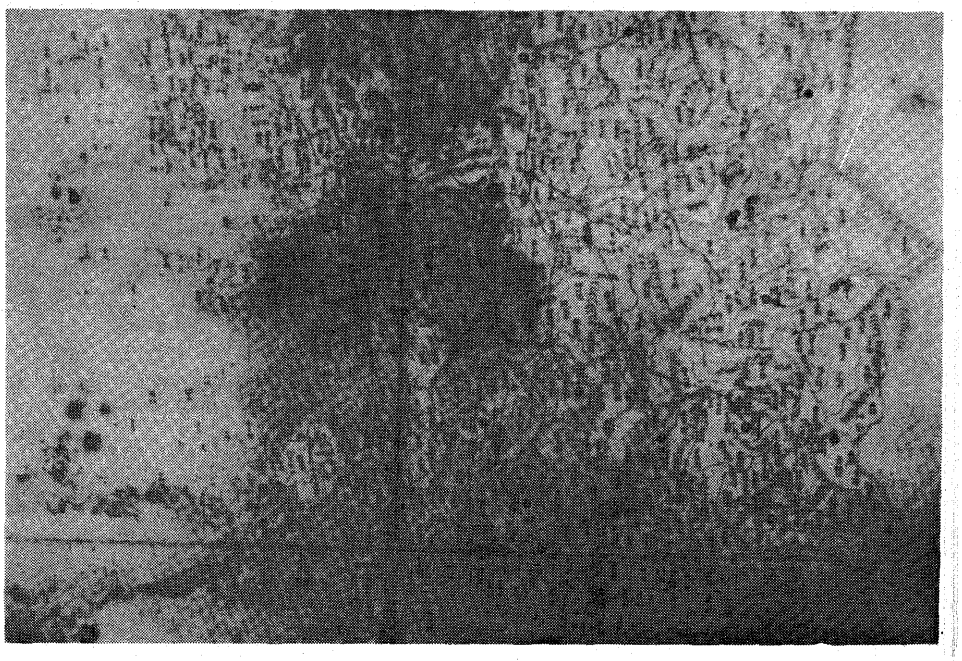

사진 3.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東國八路分地圖>의 경기도 부분

算學 등에 조예가 깊었고 지도제작 뿐만 아니라 『四裔志』라는 지리서까지 제작할 정도로 우리 국토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수정하여 '海州新本'이라는 뛰어난 지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經世致用을 강조하는 星湖學派 계열의 河東鄭氏 家門, 利用厚生을 강조하는 燕巖學派 계열의 海州鄭氏 家門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정, 전사되었고 이외에도 역사속에 묻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면서 조선후기 지도학의 최고 정점인 金正浩의 <靑邱圖>, <大東輿地圖>에 이르게 되었다.

Ⅳ. <東國地圖> 寫本들의 系譜

1. 鄭尙驥의 <東國地圖> 原圖 系列

앞에서 고찰한 <東國地圖> 寫本 제작자들의 인적 계보, 제작시기, 그리고 표현해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도의 윤곽과 내용 등을 토대로 각 사본들의 계보를 파악해 볼 수 있다.[48] 이러한 것을 토대로 파악되는 현존 사본들의 系譜는 鄭尙驥의 原圖를 따르는 系列과 지도의 윤곽과 구성체제, 수록내용 등이 다소 변형된 修正本 系列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현존하는 鄭尙驥의 <東國地圖> 사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原圖 系列이다. 鄭尙驥의 원래 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사본들인데 한반도의 윤곽을 비롯한 전체적인 표현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지명과 같이 후대에 변화된 내용들만 수정된 사본들이다. 이 系列에 속하는 寫本들은 鄭尙驥의 跋文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京畿道와 忠淸道를 하나의 圖面에다 합쳐 그렸고 咸鏡道는 南道와 北道로 분리해서 그렸다.[49] 또한 대부분 百里尺과 地圖 跋文이 傳寫되어 있는데 초기 사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분석대상 사본들 가운데 原圖 系列의 사본들은 규장각의 <八道地圖(古4709-14)> 외에 7점, 국립중앙도서관의 <東國地圖(한61-12,귀112)> 외에 5점, 고려대 2점, 성신여대 3점, 이화여대 1점, 호암미술관, 개인 소

장본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다른 지도들보다 널리 사용되었던 지도라 할 수 있는데 골고루 분산되어 소장된 것만 보더라도 官에서뿐만 아니라 民間에서도 널리 유포되었던 사본들이다.

원도계열의 寫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東國地圖>의 한반도 윤곽이 후대 사본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해안선의 윤곽이나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는 몇 십년 뒤의 사본에서도 변함이 없다. 또한 산맥이나 하천의 표현 체계도 대부분의 사본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고 郡縣의 位置나 烽燧, 驛堡 등도 대부분 동일하다. 단지 변천된 지명과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지명들이 후대로 가면서 보완된 정도이다.

2. <東國地圖>의 修正本 系列

1) 初期 修正本 系列

修正本 系列의 寫本들에 있어서 표현상의 특성들과 그 변화를 파악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윤곽에서 앞에서 고찰한 원도 계열의 사본들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후 조선후기 지도학의 계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들은 原本을 그대로 베끼고 지명과 같은 일부의 변화된 사항들만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修正本 系列의 寫本에서는 原圖의 형식에서 벗어나 국토의 윤곽에서도 상당 부분 수정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수정본의 대표적인 것이 규장각 소장의 <八道分圖(古915.1-P173)>와 <左海分圖(古4709-14)>이다.

이들은 1767년에 이전에 제작된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사본들인데 地圖帖의 구성에 있어서도 원도의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 즉, 鄭尙驥의 原圖는 京畿・忠淸道를 합쳐 한 장의 지도로 그리고 咸鏡北道를 南道와 北道로 분리하여 각각 한 장의 지도로 만들었는데, 이와는 달리 <八道分圖>와 <左海分圖>에서는 각각 팔도별로 지도를 한 장씩 작성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사본들에서는 百里尺과 跋文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

<八道分圖>와 <左海分圖>로 대표되는 初期 修正本이 표현하고 있는 국토의 윤곽을 다른 사본들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오늘날의 中江津에서 晩浦로 이어지는 鴨綠江의 유로 부분에서 나타난다. 鄭尙驥의 원도 윤곽을 따르는 사본들에게서는 이 鴨綠江의 流路 부분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이 修正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만입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압록강 부분의 이러한 윤곽은 19세기에 제작되는 여러 지도에서도 보이는데 이들 지도들의 系譜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압록강 부분에서의 차이외에 南海岸에서도 윤곽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南海岸의 高興半島와 麗水半島, 이들 주변의 島嶼地方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初期 修正本은 鄭尙驥의 原圖에서 보이는 오류들을 시정하고 있다. 鄭尙驥의 原圖 계열을 따르는 사본들에서는 白也串을 섬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초기는 물론 후대의 사본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해 놓고 있다. 그러나 初期 修正本 系列의 寫本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했고 또한 濟州島 旌義縣 서쪽이 호수로 표현되었던 원도 계열 사본의 잘못까지도 바로 잡았다.

初期 修正本이 표현해내고 있는 地理的 事象들은 이전의 原圖 系列의 寫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다. 山川, 峴, 峙, 嶺 등과 같은 自然的 尿素는 물론이고 倉, 山城, 寺, 郡縣內의 坊里, 일부 面名, 津, 塚, 亭子, 碑 등과 같이 鄭尙驥의 原圖 系列의 寫本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고 있는 방대한 人文的 要素들까지도 지도상에 표현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初期 修正本으로부터도 계속적으로 傳寫되었는데 호암미술관 소장의 <海東圖>(李燦, 1991, 圖版 94-99)와 규장각 소장의 <輿地圖(고4709-37)>가 대표적이다.[50] 이들 지도들은 보면 初期 修正本인 <八道分圖>, <左海分圖>의 윤곽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初期 修正本으로부터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傳寫되어 뚜렷한 系譜를 형성하게 되는데 현존하는 사본들로 본다면 원도 계열보다는 수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이후의 지도들이 이들 지도의 윤곽을 많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후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은 원도 계열의 사본들보다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2) 鄭厚祚의 '海州新本' 系列

<八道分圖>, <左海分圖> 등과 같은 수정본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본은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의 <東國八路分地圖>, 규장각 소장의 <朝鮮八道地圖(古4709-54)> 등이 있다. 이들 지도들도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그대로 模寫하지 않고 다소 수정·변형시킨 지도들인데, 朝鮮後期 地圖 發達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지도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지도는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의 <東國八路分地圖>이다(사진 3 참조). 이 지도의 구성체제나 윤곽은 鄭尙驥의 原圖를 따르지 않고, <八道分圖>·<左海分圖> 등의 初期 修正本처럼 상당히 수정되었다. 또한 표현 내용들은 이전의 初期 修正本보다도 훨씬 풍부해졌다. 특히 郡縣內의 모든 面의 명칭과 군현 경계까지도 표시되었는데 이는 初期 修正本에서도 없었던 것이다.

이 사본의 표지에는 '甲辰孟春'이라는 제작연대가 註記되어 있는데 지도표지에 주기된 甲辰은 지도상의 지명으로 고증해 보았을 때 1784년(정조 8)에 해당한다. 또한 지도첩 말미에는 범례가 실려 있어서 제작과정과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51]

凡例의 序頭에서 이 지도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놓고 있다.

" 우리나라 지도의 여러本들 중에서 오직 故 司諫 鄭恒齡 집안의 所藏本이 가장 정교한데 자를 써서 땅을 측량하는 법을 실지로 창안한 것이다. 이에 그 본을 취해 표준으로 삼고 별도로 量地尺을 만들어서 여러 읍지로써 교정을 했다."[52]

이 凡例에서 지도 제작자는 鄭恒齡家의 지도를 표준으로 삼고 수정을 가하여 지도를 만들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鄭恒齡은 정상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도 제작자가 표준으로 삼은 지도는 鄭尙驥의 <東國地圖> 사본이다. 별도로 量地尺을 만들어 지도제작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을 지도제작의 기본도로 이용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지도의 윤곽을 보면 鄭尙驥의 原圖 系列 寫本들과도 상당히 다르고 또한 初期 修正本들과도 다르다. 이는 지도제작자가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을 바탕으로 삼았으면서도 세세한 윤곽들은 각 지방의 읍지에 소재해 있는 지도와 그 당시 남아 있던 여러 지도들을 참조한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원래 總圖 1폭, 八道分圖 8폭, 嶺隘海防圖 1폭, 四裔圖 1폭 등 도합 11폭으로 이루어진 지도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은 八道分圖 8폭뿐이고 나머지는 결본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四裔圖>이다. 원 지도첩에 포함되어 있던 <四裔圖>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사방의 주변국에 대한 지도인데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凡例에서 <四裔圖>에 관해 기술하고 있어서 대강의 모습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그린다고 한다면 四界의 險夷·要害는 상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四裔圖 1폭을 만들었다. 북으로는 烏剌·寧古塔, 동으로는 分河를 따라 경계로 삼고 서쪽으로는 遼野를 지나 멀리 燕京까지 이르고, 또한 연경에서 곧바로 바다를 돌아 남쪽으로 福建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일본, 남으로는 流球까지를 합하여 그렸다. 西北裔는 『盛京志』와 『淸一統志』로 교정했고, 중국연해는 단지 도서와 해변 列邑만으로 彼我의 隔海 形勢를 표현하였다. 일본은 倭漢三才圖와 會中所在의 地圖를 합쳐 그렸으며, 流球는 周潢의 『流球通略』으로 교정하여 지도를 합쳤는데 사예의 지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로 小尺을 썼다."[53]

이처럼 <四裔圖>는 이전의 關防地圖처럼 중국과 우리나라의 접경 지대만을 그리는데서 끝나지 않고 日本, 流球(오끼나와)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방대한 지도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凡例에서도 지도 제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대에 이러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지도제작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이를 파악해낼 수도 있다.

이 지도의 제작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을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李德懋는 이 책의 各省의 南極高度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四裔志』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의 저자를 鄭厚祚라고 밝혀 놓았다.[54] 이와 더불어 李圭景이 지은 『五州衍文長箋散稿』의 「志地辯證說」에서도 鄭厚祚가 『四裔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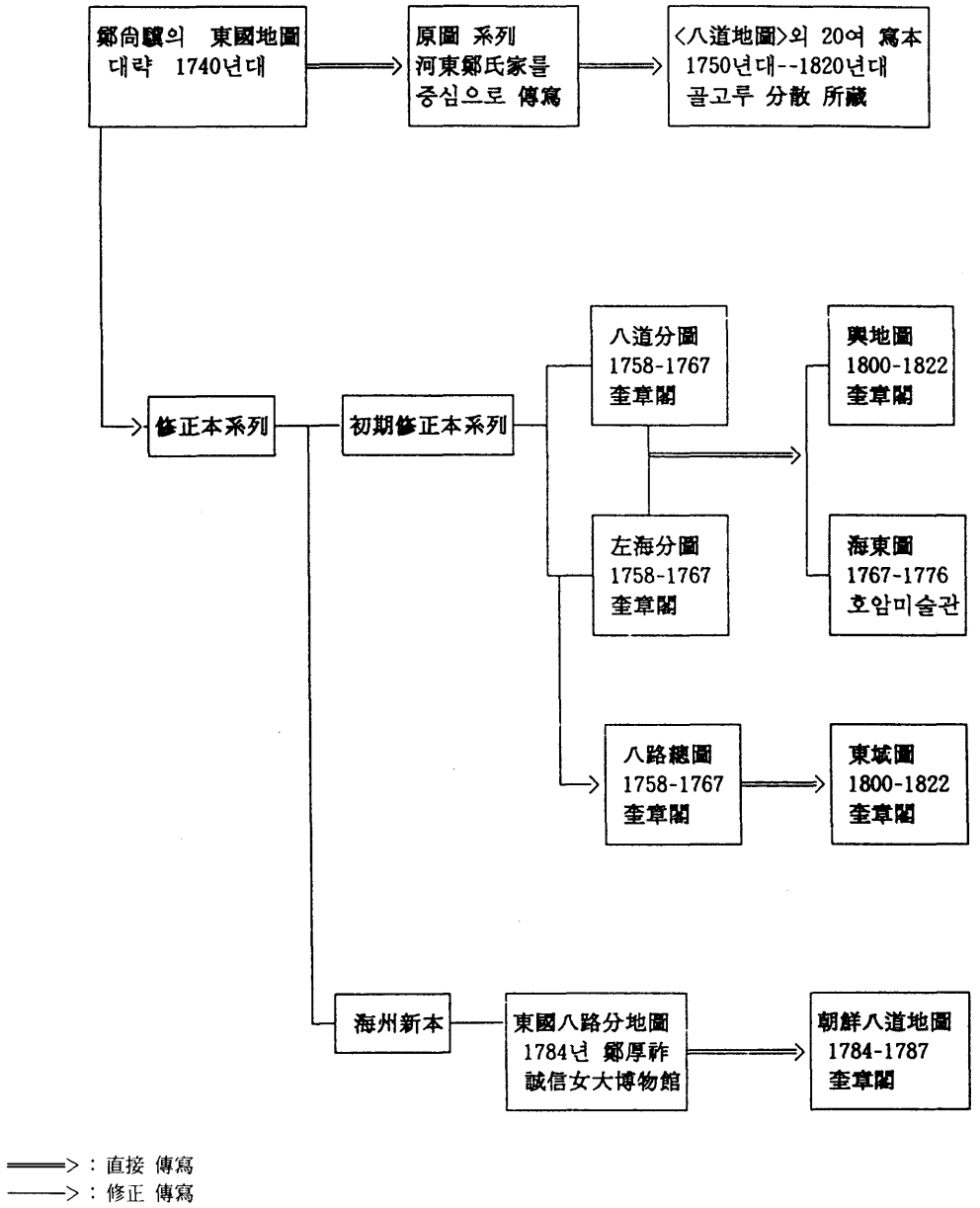

그림 1. 現存하는 <東國地圖> 寫本들의 系譜

를 저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55] 여기서 말하고 있는 『四裔考』는 李德懋가 언급했던 『四裔志』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대개 과거의 지도제작은 地志를 바탕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지도를 바탕으로 地志가 저술되기도 하였다. 金正浩도 '대개 圖로써 그 상을 살피고 書로써 그 수를 밝히니 左圖右書는 진정 배우고자 하는 자의 일이다[56]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地志와 地圖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四裔志』를 바탕으로 <四裔圖>가 제작되었던지 아니면 <四裔

圖>를 바탕으로 『四裔志』가 저술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四裔圖>를 실지로 제작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는 黃胤錫의 <八道地圖> 跋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최근에 海州鄭氏 佐郎 鄭厚祚는 判書 鄭運維의 아들인데 그의 형 文官 鄭喆祚는 역법, 서학, 그리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고 厚祚는 중국, 서역, 청해, 몽고, 성경지도 등을 더욱 힘써 궁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도 일이관지하여 河東本에 의해 수정을 가하여 마침내 그 이상의 뛰어난 지도를 만들어 냈다….."[57]

이 글에서 黃胤錫은 鄭厚祚가 中國, 西域, 青海, 蒙古, 盛京地圖 등을 窮究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四裔圖>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그가 궁구했던 지도들은 우리나라 주변국 즉, 四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정도 규모의 <四裔圖>를 제작할 수 있는 지도제작자는 극소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분야에 정통했던 鄭厚祚 이외에 제3의 인물을 상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黃胤錫은 鄭厚祚가 鄭尙驥의 河東本을 바탕으로 수정을 가하여 만든 지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海州新本'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지도의 범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즉, 범례에서 지도제작자는 鄭恒齡家 所藏의 地圖를 표준으로 삼아 자신의 지도를 제작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黃胤錫의 <八道地圖(古4709-48)>는 1790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당시 이미 '海州新本'이 만들어진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海州新本'은 최소한 179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東國八路分地圖>의 제작연대가 1784년인 점은 이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鄭厚祚의 생몰연대는 1758년에서 1793년까지인데 지도의 제작연대인 1784년은 이 사이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광범한 주변국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는 <四裔圖>와 鄭尙驥의 地圖 寫本을 바탕으로 八道分圖를 제작하여 하나의 地圖帖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인물은 鄭厚祚 외에는 생각하기가 힘들다. 현재의 <東國八路分地圖>는 바로 鄭厚祚의 '海州新本'인 것이다.

鄭厚祚의 '海州新本'으로 추정되는 <東國八路分地圖>를 보면 鄭尙驥의 原圖 系列 寫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지리적 정보를 싣고 있다. 이전 사본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특징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맥과 하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요소의 표현이 정상기의 원도계열 사본들보다 훨씬 정교해졌는데 산맥과 하천 중에서 10리가 넘는 것은 명칭이 없더라도 모두 그려 넣었다.

둘째, 지도상에 표현된 인문적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정상기의 원도계열의 사본들은 기껏해야 郡縣名, 海路를 포함한 交通路, 烽燧, 山城, 驛堡 등의 關防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海州新本'에서는 山의 嶺隘, 烽燧, 江의 津梁, 倉名, 面名, 驛站 등을 아우르고 있고 특히 郡縣의 坊里는 모두 표기하였다.

셋째, 정상기의 원도계열 사본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각 읍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또한 두만강, 압록강 주변의 把守와 海西 沿海의 把守를 표시했으며 읍까지의 거리를 註記했다.

넷째, 범례(legend)가 보다 정교해졌다. 정상기의 원도에서는 취락의 계층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는 京都는 큰 노란색 원으로 표시했고, 巡營은 홍색 사각형, 兵營, 水營, 統營 등은 청색 사각형, 여타의 군현은 홍색 원으로, 驛은 노란색의 작은 사각형, 鎭은 청색의 마름모 꼴 등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

이처럼 <東國八路分地圖> 즉, 이른 바 '海州新本'은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黃胤錫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훌륭한 지도임에는 틀림없다. 黃胤錫도 처음에는 이 지도를 얻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도를 제작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鄭尙驥의 '河東本'에 의거해서 <八道地圖(古4709-48)>를 제작하였던 것이다.[58] 이처럼 뛰어난 지도라면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傳寫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행스럽게도 '海州新本'을 模寫한 지도가 현존하고 있어서 朝鮮後期 地圖學史에서 '海州新本'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奎章閣 所藏의 <朝鮮八道地圖(4709-54)>가 바로 그것이다.

<朝鮮八道地圖>는 지도상에 표현된 내용을 토대로 고증해 볼 때, '海州新本'이 제작된 1784년과 떨어지지

않는 시기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이 지도와 '海州新本'인 <東國八路分地圖>를 비교해 보면 지도의 내용이나 윤곽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단지 平安道와 咸鏡道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構成 體制上의 차이이다. 즉, <東國八路分地圖>에서는 平安道와 咸鏡道를 한 도면에 그렸지만 <朝鮮八道地圖>에서는 平安道와 咸鏡道의 도면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南道와 北道로 나누어 그렸다. 따라서 애초의 '海州新本'은 8폭의 分圖로 이루어졌지만 <朝鮮八道地圖>에서는 도합 10폭의 分圖로 이루어졌다.

'海州新本'인 <東國八路分地圖>와 이 지도의 模寫本인 <朝鮮八道地圖>는 여타의 <東國地圖> 寫本들보다 朝鮮後期 地圖學史上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 시기의 사본들과는 달리 방대한 양의 지리적 정보들을 표현해 내고 있으며 그 표현체계나 방법 등도 매우 정교해졌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59] 또한 이들이 표현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윤곽은 이후 지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조선후기 지도학사상 차지하는 영향력은 여타의 지도보다 컸다 할 것이다.

3) <八路總圖>와 <東域圖>

修正本 系列의 寫本들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도는 奎章閣 所藏의 <八路總圖(古枚912.51-P186)>이다. 이 지도는 19세기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장각 소장 <東域圖(4709-27)>의 全圖가 된다. <東域圖>와 <八路總圖>의 윤곽과 표현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鄭尙驥의 大全圖와 八道分圖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東域圖>의 각 道別圖를 합치면 <八路總圖>가 된다. 이처럼 <東域圖>와 <八路總圖>가 하나의 세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도의 제작시기는 같지 않다. <八路總圖>의 제작시기는 1767년 지명이 바뀌는 平安道 理山과 忠淸道 尼山이 표기되고 1758년 축성된 慶尙道의 金烏山城이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보아 1758년에서 1767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와는 달리 <東域圖>의 제작시기는 19세기 초로 추정되는데 <八路總圖>와는 대략 40-50년간의 차이가 난다. 이로 본다면 이전 시기에 제작된 大全圖인 <八路總圖>를 후대에 각 도별로 분리, 모사하여 팔도분도첩인 <東域圖>를 만들었는데 변화된 지명만을 수정하여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東域圖>는 정상기의 원도를 대폭 수정한 修正本 系列의 사본이면서도 構成 體制는 鄭尙驥의 原圖를 따르고 있다. 즉, 경기도·충청도를 한 도면에 그렸고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여 그렸는데 여타 수정본 계열의 사본과는 다르다. 이는 이 지도가 鄭尙驥의 原圖 系列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이 지도의 부분적인 윤곽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지도의 제주도 부분에는 旌義縣 서쪽지역이 灣이 아니라 호수의 형태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도 고찰했듯이 정상기의 원도계열 사본에서 흔히 보이는 오류이다. 이는 <東域圖>의 大全圖인 <八路總圖>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1758년에서 1767년 사이에 정상기의 대전도 사본을 바탕으로 <八路總圖>를 제작했고 이후에 이를 그대로 모사하여 팔도분도인 <東域圖>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八路總圖>는 초기 수정본인 <八道分圖>, <左海分圖> 등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수정본과 마찬가지로 鄭尙驥의 原圖 系列 寫本에서 보이는 오류들을 시정하고 있다. 윤곽과 표현 내용도 대략적으로 초기 수정본과 일치하고 있어서 같은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八路總圖>에서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 해안 지역의 윤곽이 매우 자세해졌고 初期 修正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섬들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金正浩의 <大東輿地圖>보다 100여년 앞선 시기에 이미 한반도의 윤곽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도서지방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정교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正浩의 地圖學史上 뛰어난 업적도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이룩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河東鄭氏 家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傳寫된 原圖 系列과 鄭尙驥의 原圖를 수정하고 개량한 修正本 系列로 후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鄭尙驥의 原圖 系列의 오류를 시정하고 보다 풍부한 지리적 정보들을 담고 있는 初期 修正本 系列과 鄭尙驥의 原圖를 표준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완전히 뛰어넘는 역작인 '海州新本'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윤곽은 물론 도서지방까지도 매우 정교하게 표현

해내고 있는 <八路總圖>와 <東域圖>도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들의 계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V. 요약 및 결론

조선후기 지도제작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古山子 金正浩이다. 그는 <靑邱圖>, <東輿圖>, <大東輿地圖> 등의 뛰어난 지도뿐만 아니라 『東輿圖志』, 『輿圖備志』, 『大東地志』 등과 같은 방대한 地志까지 저술하였는데 사실상 朝鮮後期 地理學을 집대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는 시기에 金正浩에 버금가는 지도 제작자였던 農圃子 鄭尙驥가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그가 제작한 <東國地圖>는 이전 지도와는 달리 大縮尺의 地圖이며, 百里尺이란 독창적인 축척 개념의 도입, 山川과 같은 自然的 要素뿐만 아니라 交通路, 聚落, 驛堡, 山城, 烽燧 등의 人文的 要素의 重視, 折帖式에 의한 構成 體制 등으로 우리나라 지도 발달사에서 한 획을 그은 지도이다. 그 이후 지도제작에 끼친 <東國地圖>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으며 현재에도 이 지도로부터 傳寫·修正된 寫本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본 논문은 현존하는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들을 토대로 아직까지 신비에 싸여있는 <東國地圖> 제작과정의 일단을 밝히고자 동국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해 보았고 현존 사본들의 제작시기를 추정하여 時系列的인 分析을 함으로써 <東國地圖>의 구체적 變容 樣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현존하는 <東國地圖> 寫本들의 系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목적하에 수행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당시 지도제작의 수준을 검토해 보았는데, 朝鮮前期의 實測地圖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음을 현존하는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李頤命의 <遼薊關防圖>, 尹鍈의 <東國地圖> 寫本으로 추정되는 <西北彼我兩界萬里地圖>·<西北疆界圖>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韓半島 北部地方의 윤곽은 현존하는 朝鮮前期의 대표적인 실측지도인 <朝鮮國繪圖>, <朝鮮方域圖>보다 훨씬 정교해진 것이다. 따라서 鄭尙驥의 <東國地圖>도 조선전기 실측지도들보다 정확하게 한반도의 윤곽을 표현해내고 있었던 당시 지도들을 바탕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傳寫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사본들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았는데 <東國地圖>는 鄭恒齡, 鄭元霖, 鄭遂榮 등과 같은 鄭尙驥의 후손들이 傳寫過程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鄭喆祚, 鄭厚祚로 대표되는 海州鄭氏 家門에서도 <東國地圖>의 修正·傳寫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東國地圖>를 단순히 模寫한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더욱 개량시킨 것으로 <東國地圖>를 한 수준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존하는 <東國地圖> 사본들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본 결과 고려대의 <朝鮮全圖>, 李燦 所藏의 <東國地圖> 등과 같은 정상기의 생존시기에 근접하는 사본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1820년 이후에도 호암미술관의 <東國地圖>와 같은 사본이 제작되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셋째, 현존하는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들의 時系列的인 比較를 통해 系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파악된 系譜는 크게 <東國地圖>의 原圖 系列과 修正本 系列로 분리되는데, 수적으로는 원도 계열의 사본이 많으나 이후의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는 수정본 계열이 원도 계열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系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奎章閣 所藏의 <八道分圖>, <左海分圖> 등과 같은 初期 修正本으로부터도 후대에 계속적인 傳寫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鄭厚祚가 제작한 이른 바 '海州新本'으로 추정되는 誠信女大 所藏의 <東國八路分地圖>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海州新本'인 <東國八路分地圖>는 그 후에도 전사되어 이어졌는데 奎章閣 所藏의 <朝鮮八道地圖>가 대표적인 지도이다. 또한 初期 修正本인 <八道分圖>, <左海分圖> 등과 맥을 같이 하는 大全圖인 <八路總圖>가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고 후대에 奎章閣 所藏의 <東域圖>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들

을 토대로 朝鮮後期 地圖學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몇 가지 점에서는 연구가 미진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첫째로는 鄭尙驥의 <東國地圖> 제작의 구체적인 기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科學史, 測地學 부분의 연구 성과들이 뒷받침될 때 보다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鄭尙驥의 <東國地圖> 이후 金正浩의 <靑邱圖>, <大東輿地圖>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系譜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에는 18세기 후반 이후 제작되는 大縮尺 郡縣地圖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들 郡縣地圖들과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들과의 연관을 파악해내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 광범위하게 편찬되는 邑誌와 거기에 수록되는 지도들이 全圖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아울러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古地圖 硏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고지도 연구는 지도상에 표현된 地理的 事象들의 분포나 빈도, 특징 등을 파악하는 데 너무 치중되어 있고 또한 단일 지도만을 연구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지도들간의 비교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서도 社會的인 脈絡들을 파악해내고, 지도상에 표현된 여러 요소들이 갖는 象徵을 이해하는 地圖 解釋學的 硏究는 다양한 고지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註 >

1) 鄭尙驥가 제작한 <東國地圖> 原本이 현존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성호 이익의 문집을 검토해 볼 때 대략 174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 그가 제작한 지도는 몇 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2) 鄭尙驥가 자신의 지도에다 <東國地圖>라는 명칭을 부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東國地圖>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편의상 <東國地圖>라는 명칭을 따랐다.

3) 아직까지도 각 소장처별로 지도의 분류, 정리, 해제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鄭尙驥의 <東國地圖> 사본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각 소장처별 자료 파악에 도움을 준 것은 다음의 문헌들이다.

建設部, 1979, 韓國古地圖目錄.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7, 韓國古地圖.

李 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李相泰, 1991, 朝鮮時代 地圖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星湖先生文集』 중에 篤行鄭公墓誌銘, 農圃子鄭公墓誌銘, 그리고 鄭尙驥와 주고 받았던 편지 등이 그의 생애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鄭允容의 <左海地圖(奎12229)> 序文에도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다.

5) 李瀷의 文集에는 1718년부터 1752년에 걸쳐 鄭尙驥에게 보낸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家禮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도 土地制度, 租稅, 科擧, 關防 등의 時務策을 논한 편지들도 있다. 또한 1754년부터 1760년 사이에 鄭尙驥의 아들 鄭恒齡에게 보낸 답신도 수록되어 있다.

6) 『星湖先生文集』 卷之四十七, 農圃子鄭公墓誌銘.

7) 『河東鄭氏文成公派譜』 卷之四 監察公派.

8) 鄭允容, <左海地圖(奎12229)> 序文.

9) 鄭尙驥의 <東國地圖>가 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있지 않다. 李瀷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鄭尙驥에 대한 答信들을 검토해보면 이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도 가능하다. 즉, 1718년부터 鄭尙驥가 죽은 해인 1752년까지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초기의 편지들은 대부분 禮論에 관한 것이고 이후로는 『農圃問答』의 여러 항목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鄭尙驥의 지도에 대한 언급은 鄭尙驥가 죽은 해인 1752년(壬申) 편지에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 이로 본다면 鄭尙驥의 <東國地圖>는 그의 생애 말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星湖先生文集』 卷之十一, 答鄭汝逸, 壬申).

10) 『星湖先生文集』 卷之四十七, 農圃子鄭公墓誌銘.

11) 조선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들에 있어서 제작경위에 대한 제작자의 註記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구나 임금에게 진상하는 지도가 아니고 일 개인의 작업에 의해 만들어져 私家에서 소장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행히 鄭尙驥의 <東國地圖> 寫本에는 지도제작 경위와 당시 <東國地圖>의 원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跋文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2) <東國地圖> 跋文.

我國地圖行於世者 不知其數而無論其模本印本 皆從紙

面闊狹方圓而爲之 故山川道里盡爲相左 十餘里之近者或遠於數百里 數百里之遠者或近於十餘里 以至東西南北或易其位 若按其圖而欲往遊於四方卽無一可據 與冥行者無異矣 予以是病焉遂作此圖

13)이 지도에 대해서는 靑山定雄의 연구(靑山定雄, 1939, 143-172)에 의해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全相運 敎授에 의해서 여러 학자들에게 소개되었다(全相運, 1988, 332-333). 그러나 長 正統은 全相運 교수가 이 지도에 대한 靑山定雄의 설명을 확대·과장 해석하였고 圖版 설명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도가 朝鮮前期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 寫本이란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長 正統, 1982, 126-127). 따라서 <朝鮮國繪圖>와 더불어 국내에 현존하는 이 유형의 지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선전기 실측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4)全相運 교수는, 鄭尙驥가 조선전기의 대학자이며 천문학자였던 鄭麟趾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지도 제작에 바탕으로 삼았던 지도는 家藏의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 寫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도 본질적으로는 鄭尙驥의 <東國地圖>와 같은 것이라고 하여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全相運, 1988, 325-342). 그렇다면 이미 조선전기에 鄭尙驥의 <東國地圖>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반도의 윤곽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16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지도들이 표현하고 있는 한반도 윤곽이 정상기의 지도에 비해 상당히 왜곡된 점은 설명해낼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지도의 발전과정도 인간 인식의 확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15)許筠(1567-1618)의 시문집에서도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의 산천을 감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鄭尙驥의 생존 이전 시기에 이미 사대부를 중심으로 지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許筠, 『惺所覆瓿藁』 卷六, 文部三, 記, 化鶴樓重修記).

16)『肅宗實錄』 43卷, 32年 1月 申未.

17)『疎齋集』, 進關東地圖序, 進山東海防地圖序, 進遼계關防圖序.

18)1705년 9월에 그려 올린 <山東海防地圖>를 말함.

19)同文集, 進遼계關防圖序.

20)『星湖僿說』, 天地門, 東國地圖.

21)金正浩, <靑邱圖>凡例.

22)奎章閣 所藏의 <西北彼我兩界萬里之圖(古4709-22A)>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西北疆界圖(한61-19,귀130)>가 대표적인 지도인데 이들 지도 여백에는 李瀷이 인용하고 있는 尹鍈의 글과 똑같은 글이 실려 있다.

23)李世旭, 『堅城誌』, 塚墓條.

24)대전도의 규격은 지도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가로 140, 세로 250cm이다.

25)<東國地圖>의 傳寫는 原圖 위에다 투명한 한지를 대고 그대로 본뜨는 방법으로 행해졌는데 大全圖의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지를 여러 장 이어 붙여서 전사해야 했다. 따라서 보다 작은 규격인 八道分圖보다는 傳寫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된다.

26)鄭尙驥의 大全圖 寫本은 이외에도 李丙燾 所藏本과 李燦 所藏本이 알려져 있다.

27)八道分圖 寫本들 중에는 소략하게 그려진 축소본들도 있는데 규장각 소장의 <支那朝鮮地圖(규10332)>중의 팔도분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海東全圖(한61-46)> 등이 대표적이다.

28)영남대학교 박물관에도 鄭尙驥의 八道分圖 類型에 속하는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지도가 <靑邱輿地圖(10146)>이다. 또한 해외에도 이같은 유형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일본 동경대학에 몇 본이 소장되어 있고 미국의 UCLA의 도서관에도 정상기가 제작한 팔도분도 유형의 지도가 <東國輿地圖>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는 사실이 1967년 『IMAGO MUNDI』에 실린 김영일 박사의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찬 교수가 정상기의 팔도분도 유형에 속하는 지도 몇 점을 소장하고 있다.

29)『河東鄭氏文成公派譜』 卷之四, 監察公派.

30)『星湖先生文集』 卷之十七, 答鄭玄老, 庚辰.

31)申景濬, 『旅菴遺稿』 卷五, 跋, 東國輿地圖跋.

32)丁若鏞, 『與猶堂全書』 第六集, 大東水經, 卷五.

33)洪良漢이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했던 것이 <東國地圖>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英祖實錄』 89卷, 33年, 5月 6日 乙丑, 9일 戊辰).

34)申景濬, 『旅菴遺稿』, 卷五, 跋, 東國輿地圖跋.

35)頤齋 黃胤錫(1729-1791)은 영·정조년간의 학자로서 성리학은 물론 수학, 언어학,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理數新編』 등 여러 저술을 남겼는데 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수 있다. 또한 黃胤錫은 鄭喆祚와 天文, 曆算에 대해 학문적 교류를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36)黃胤錫, <八道地圖(고4709-48)> 跋文.

37)『海州鄭氏大同譜』, 卷二, 宗派.

38)『槿域書畵徵』卷五 鮮代編, 鄭喆祚.
39)『正祖實錄』, 12卷 5年, 9月 癸酉.
40)李德懋, 『靑莊館全書』第五十五卷, 盎葉記 二, 虎紋鳥.
41)『蒼園鄭寅普全集』五, 蒼園文錄 三, 鄭石癡歌.
42)黃胤錫, 『頤齋遺稿』卷之六, 與鄭喆祚書.
43)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卷四十六, 志地辨證說.
44)燕巖 朴趾源의 문집에도 鄭喆祚와 관련된 詩와 祭文이 있지만 지도제작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朴趾源 『燕巖集』卷之五 尺牘 與石癡, 卷之十 祭文 祭鄭石癡文).
45)『蒼園鄭寅普全集』五, 蒼園文錄 三, 鄭石癡歌.
46)『正祖實錄』18卷 八年, 甲辰 十月, 乙未.
47)李德懋, 『靑莊館全書』第六十卷 盎葉記 七 各省南極高度.
48)이러한 系譜의 파악은 <東國地圖>의 역사적 변용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金正浩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지도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49)호암미술관 소장의 <東國地圖>는 原圖 系列에 속하면서도 예외적으로 京畿道와 忠淸道를 분리했고 반면에 咸鏡道는 합쳐 그렸다.
50)이들 外에도 호암미술관 소장의 圖帖 <天下古今總圖>와 李燦 所藏本이 있다. 이찬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사본들중에 方眼格子가 있고 축소된 형태의 사본인 <東國地圖>의 윤곽을 보면 鴨綠江 流路는 原圖 系列을 따르고 있지만 남해안 부분은 初期 修正本을 따르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다. 특히 남해안 부분에는 舊本 즉, 정상기의 원도 계열이 오류가 많아 他本을 모방하여 그린 사실을 주기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他本이라는 것은 바로 초기의 修正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李燦, 1991, 圖版 62·63).
51)<東國八路分地圖> 帖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범례의 제목은 '東國輿地圖凡例'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 표지의 제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지도의 원 명칭은 범례에서처럼 <東國輿地圖>이고 총 11폭으로 구성되었는데 후대의 소장자가 八道分圖만을 따로 떼내어 첩으로 묶으면서 지도의 명칭을 <東國八路分地圖>라고 붙여서 지도 표지에 題書한 것으로 보인다.
52)<東國八路分地圖>, 東國輿地圖 凡例.
53)東國八路分地圖, 東國輿地圖 凡例.
54)李德懋, 『靑莊館全書』第六十卷, 盎葉記 七.
55)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卷四十六, 志地辯證說.
56)金正浩, <大東輿地圖>, 地圖類說.
57)黃胤錫, <八道地圖(고4709-48)> 跋文.
58)黃胤錫, <八道地圖> 跋文.
59)'海州新本' 系列의 지도가 조선후기 지도학사에서 갖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金正浩의 <靑邱圖>가 출현하기 전단계에서 광범하게 제작되었던 郡縣地圖들과의 연관을 추적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萬機要覽』『增補文獻備考 輿地考』金正浩, 『大東地志』朴齊家, 『楚亭集』朴趾源, 『燕巖集』申景濬, 『旅菴全書』 魚叔權, 『攷事撮要』吳世昌, 『槿域書畵徵』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李德懋, 『靑莊館全書』 李世旭, 『堅城志』 李瀷, 『星湖先生文集』, 『星湖僿說』李頤命, 『疎齋集』丁若鏞, 『與猶堂全書』鄭尙驥, 『農圃問答』 鄭允容, 『北路紀略』鄭寅普, 『蒼園文錄』許筠, 『惺所覆瓿藁』黃胤錫, 『頤齋全書』『河東鄭氏文成公派譜』『海州鄭氏大同譜』金正浩, <靑邱圖> <大東輿地圖>

建設部, 1979, 韓國古地圖目錄.
金庚星, 1977, "韓國古地圖에 關한 硏究," 駱山地理 第4號.
金儀遠, 1982, 韓國國土開發史硏究, 大學圖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1, 서울大出版部.
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楊普景, 1991, "목판본 「東國地圖」의 편찬 시기와 의의," 奎章閣 14.
_____,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고찰 - 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地圖集을 중심으로-," 奎章閣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延世大出版部編, 1983, 蒼園鄭寅普全集 2.
元慶烈, 1991, 大東輿地圖의 硏究, 成地文化社.
윤홍기, 1991, "대동여지도의 지도 족보론적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李 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_____, 1979, "東覽圖의 特性과 地圖發達史에서의 位置," 『震檀學報』46·47호.
李丙燾, 1960, "鄭尙驥와 東國地圖," 書誌 第1卷 第1號.
李相泰, 1991, 朝鮮時代 地圖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全相運, 1988, 韓國科學技術史, 제2판, 正音社.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7, 韓國古地圖.
邢基柱, 1963, "古地圖에 관한 硏究資料," 地理學 1號.
Thrower, N.J. and Kim, Y.I., 1967, "Dong-Kook-Yu-Ji-Do : A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 of a Map of Korea," *Imago Mundi*, vol. 21.
長 正統, 1982, "內閣文庫所藏およひその朝鮮國圖諸本についての硏究," 史淵 第 119輯, 九州大學.
靑山定雄, 1939, "李朝に於ける二三朝鮮全圖について," 東方學報 9冊.
陳正祥, 1979, 中國地圖學史, 商務印書館.

A Study on <Dong-Kook-Ji-Do (Map of Korea)> Made by Chung Sang-Ki : Focused on the Process of Map Making and the Genealogy of Manuscript Copies

Sang-Hak Oh*

Summary

<Dong-Kook-Ji-Do(東國地圖)> that Chung Sang-Ki had made in 1740's has been famous for following features, accurate expression of outlines of Korea, the use of creative scale called as Baek-Li-Chuk(百里尺), the expression of such many kinds of artificial elements as settlement, road system, stagecoach stations, beacon, defensive castles, as well as such physical elements as mountain ranges, rivers. For those reasons, several scholars have studied this map, but most studies made by the present have concerned about superficial features of this kinds of maps. Thu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Dong-Kook-Ji-Do(東國地圖)> further in the contexts of Korean cartographic histor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examination of existing old Korean maps, I tried to find out developing stage of map-making that <Dong-Kook-Ji-Do(東國地圖)> could be made in. As a result, I was able to identify that the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YO-Ge-Kwan-Bang-Ji-Do(遼薊關防地圖)> by Lee,Yi-Moeng(李頤命) and the manuscript copies of Yoon Young's(尹鋏) map expressed is relatively accurate. In other words, the exaggerated shapes of northern area of Korean peninsula expressed by earlier maps in the Lee Dynasty were corrected by a few maps made in the late 17th century.

Second, Chung Sang-Ki(鄭尙驥) had made <Dong-Kook-Ji-Do(東國地圖)> without field survey, especially compiled existing maps as a creative manner. In his map compilation, Baek-Li-Chuk(百里尺) was used instead of a grid imported from china.

Third, Chung Sang-Ki's <Dong-Kook-Ji-Do> had not only been copied by his descendants, but corrected by several scholars, especially Chung Hu-Jo(鄭厚祚).

Forth, approximately from 1750's to 1820's, the most existing manuscript copies were made. <Cho-Seon-Chun-Do(朝鮮全圖)> possessed by the museum of Korea University and <Do-Kook-Ji-Do (東國地圖)> by Lee, Chan are assumed to be made in 1750's. On the contrary, <Dong-Kook-Ji-Do(東國地圖)> possessed by Ho Am museum is assumed to be made in 1820's.

Fifth, the most existing manuscript copies consist of eight provincial maps, and the order of eight provincial maps is almost the same as the original map, Chung Sang-Ki's <Dong-Kook-Ji-Do(東國地圖)>. Baek-Li-Chuk(scale) and legend illustration appeared in the most earlier manuscript copies, but not in late manuscript copies. The supplementary note of empty space in the map mostly consists of distance data, population, the square of cultivated field, administrative official etc.

Sixth, I examined the genealogy of existing manuscript copies with chronological contrasts. As a result, I identified that the genealogy consisted of two groups, namely original map group and corrected map group. The manuscripts of original map group are conserved in many museum and library.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manuscripts of corrected map group are fewer than the other, their influences on later map-making are larger than the other.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I found out 'Hae-Ju-Sin-Bon(海州新本)' made by outstanding cartographer, Chung Hu-Jo(鄭厚祚) in the Sung Sin Woman's College Museum. His map is estimated to outgo all other manuscripts.

Key Words : Chung Sang-Ki(鄭尙驥), Dong-Kook-Ji-Do(東國地圖), genealogy, method of map-making, the time of map-making, Hae-Ju-Sin-Bon(海州新本).